

문화특별시 추진 '가속도'

전주시 문화발전 계획
전통문화 도시재생 연계
특별법 제정 해결방안 제시
도내 예술인들 참석해
구도심 개발 등 의견도

전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동참하면서,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주시는 29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기획자와 문화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주 문화특별시 문화발전 계획을 개최했다.

'문화특별시 전주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문화발전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예술인들이 경험한 지역의 문화 활동 여건을 시작으로, 문화특별시 특별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한 전북 상생 발전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전주 문화특별시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는 "전통 문화의 산업화를 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휘정 성균관대 문화융합연구소 부소장은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을 위한 법제의 고찰'을 주제로 특별법안의 소개 및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제도적 입법과제와 해결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는 전통 예술기획자와 작가, 국악인 등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물론, 전북에서 활동하는 다른 문화종사자들의 사례까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추진해야 될 구도심 개발 등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방안 △ 청년 문화예술인 인력풀 양성·창작 지원 △ 교육·컨설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과 특별법안 내용 반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청년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주 문화특별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한편, 세미나와 포럼, 캠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특별시 추진에 대한 범시민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전주 문화특별시의 비전과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핵심 공약이자, 100대 과제 지역 공약으로 채택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정책 세미나와 시민연구모임 간담회를 추진해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전주 문화특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월드 인라인마라톤 내달 3일 개최
 제16회 2018 전주월드인라인 마라톤 대회 기자회견이 29일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석진 전주시 톨러스포츠연맹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주민자치위, 마을 자치 실현 역량 강화 경주 방문

전주시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이 선도하는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석문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35개 동 주민자치위원 150여명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박람회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전국의 우수한 정책들을 견학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위원들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전주관광 우수사례, 필리핀으로 전파

필리핀 라우니온 주지사·대표단, 벤치마킹 위해 전주 찾아
팔복예술공장 등 도시재생 통한 관광연계사례 현장 방문

전주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과 여행객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 시켜온 전주시의 우수정책이 필리핀으로 전파된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페코이 오르테가 주지사를 비롯한 필리핀 라우니온 대표단 일행 17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시를 방문했다.

라우니온 대표단은 주지사를 비롯해 주 행정관과 주 전략차관, 무역산업처, 발전관리처 등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의 지속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던 차에 전주한옥마을을 지역문화자원과 창의가치가 결합된 성공사례로 판단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롤모델로 삼고 이번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우니온 대표단은 먼저 문화재생을 통해 폐산업시설을 문화거점으로 만든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해 설립 취지와 운영 사례에 대해 청취하고, 전시 중인 다양한 작품을 구경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선진농업 기술 등을 체험했다.

대표단은 또 전주시청을 방문해 전주한옥마을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전주한옥마을이 세계비남여행자들의 지킴이로 통하는 '리플렛'의 '아시아 3대 관광명소' 선정 등 세계적인 여행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주한옥마을 곳곳을 견학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여행지이자 세계적인 여행지인 전주의 매력에

흡입 빠졌다.

필리핀 라우니온 관계자는 이날 "전주는 천년고도(古都)답게 한옥마을과 경전, 향교 등을 주축으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놀라웠다"면서 "팔복예술공장 등 예술을 통한 문화재생으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와 관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선진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전주시가 라우니온에 훌륭한 모델이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전주시의 선진행정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알려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필리핀 북서쪽에 위치한 라우니온 지역은 인구 78만명으로 관광산업과 농업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의 해양관광도시이다. /송효철 기자

세계한국학 전주 비엔날레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한류의 세계화에 발맞춰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단장 이종민 교수, 이하 전북대 코어사업단)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2회 세계 한국학 전

주 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전과 응전(Korea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Responses)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22개국 100여명의 한국학 분야의 전문 학자와 신진학자, 학문의 후속세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문 분과

별·학제 간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한국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주를 '글로벌 한국학의 중심도시'로 공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는 안병욱 한국학 중앙연구원장과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를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와 시전주 일대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체험으로 구성·운영된다. /송효철 기자

임대아파트 입주민 불편 해소 나섰다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 경찰 출석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늘푸른마을 아파트 등에 창호교체 공사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 사건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사지 않은 용도로 남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에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립귀정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 수사를 놓고는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뉴시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은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개동 100세대 창호교체공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는 전주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로 1986년에 준공했다.

공단은 입주민 간담회와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 세대의 창호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창호 교체공사를 올 9월부터 진행했다.

공사 기간 동안 초래할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최대

인력을 투입해 공사를 빠르게 진행했으며, 각 세대 시공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한 입주민은 "발코니, 베란다 단열이 취약해 겨울철에 춥고, 결로가 생기는 등 불편함이 많았지만 이번 공사로 주거 환경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전성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여성만 거주하는 아파트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과 친절, 이용편의 중심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